

## “무등산 조망권·햇살을 돌려줘”

광주 주택가에 불쑥불쑥 솟는 아파트... 주민 불만도 치솟아 건설사들 까다로운 건축심의 피하려 15층 이하 건설 선호 조례 제정으로 주차장 확보·일조권·경관심의 등 강화해야

광주 북구 중흥동에 거주하는 주부 안주미(38)씨는 요즘 집 앞에 들어선 아파트만 보면 속이 상한다. 주택 밀집지역인 안씨의 집에서 수백여m 떨어진 곳에 15층짜리 아파트가 건축되면서 ‘무등산 조망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안씨는 “집 옥상에서 무등산을 바라보는 재미 때문에 주택을 고집해 왔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집 근처에 아파트가 올라오니 이제는 무등산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면서 “주택이 대부분이 이곳에 아파트를 허가해 준 이유를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지역 주택 밀집지역 내에 조망권과

스카이라인을 붕괴하는 아파트 건축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주택가주 시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건축승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쉬운 15층 이하 아파트들이 주택가를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법 강화 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광주에 최근 10년 내 건축된 아파트는 236개 단지 10만8975세대다. 이 중 15층 이하만 140단지 5만1145세대다. 건설업체들은 높은 땅값 때문에 세대수가 많은 고층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광주에서는 유독 15층 이하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일부 건설업자들은 최근 도심 외곽보다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상권과 학군 등 생활여건이 조성돼 있는 구도심 내 일부 주택을 매입한 뒤 자치구의 심의를 거쳐 15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는 16층 이상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6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광주시의 까다로운 건축심의를 받지만, 그 외에는 상대적으로 쉬운 자치구의 심의를 받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광주시 건축심의(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건축부터 교통, 경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반면 일부 자치구 심의위원회는 대부분 건축 전문가만 포진돼 있어 주변 환경과의 영향성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내년에 준공 예정인 15층짜리 아파트는

북구 중흥동과 용두동 등 4곳으로 세대수만 1000여세대다. 지난해에도 15층짜리 아파트 4곳이 완공돼 1200여세대가 분양 완료됐다.

특히 모 건설사가 내년 2월 완공 목표로 북구 중흥동 주택·상가 밀집지역에 15층짜리 6개동(309세대)을 신축, 인근 주민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이 3층 이하 건물인 동네 한복판에 지난 연말부터 흉물스런 대형 콘크리트 건물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은 시가 추진 중인 도심재생사업 등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라도 경관심의를 비롯한 주차장 및 도로 확보비율, 일조권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북한 응원단 파견하면 입국 허용하겠다”

통일부 차관, 성화 백두산 채화 개성공단 봉송 전향적 검토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통일부는 9일 북한이 응원단을 파견하면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황부 차관은 이날 국회 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특위(이하 남북특위, 위원장 원혜영 의원)가 주최한 ‘광주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간담회’에서 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황 차관은 우선 “북한의 응원단 참가는 참가국이 결정할 문제로 회담시 국제관례에 따라 입국을 허용하겠다”며 “북한에 대한 경비지원도 국제관례와 전례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또 북한지역 성화 채화 및 봉송에 대해 “광주U대회 조직위가 북한과 협의해 정부에 공식 요청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석 광주U대회 조직위 사무총장도 이날 보고를 통해 “북한을 경유한 성화 봉송 방안으로 백두산에서 성화를 채화해 북한을 경유, 개성공단에서 성화를 인수한 후 경의선을 통해 운반하는 방안

을 고려 중에 있다”며 “오는 11~15일 까지 광주를 방문하는 북의 대학생체육 협회 관계자에게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원혜영 특위 위원장은 “주인 입장에서 북 응원단을 올 수 있도록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못해준다’ ‘다른 나라는 어쩐다’ 등 (말을)해서 (북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내현 의원은 “성화 봉송에 대해 조지워와 북이 합의했는데 정부가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1~15일 서구 힐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리는 광주U대회 대표단장(HoD·Head of Delegation) 사전회의에 북한 대표단 등 60개국 120명이 참여하며 13일에는 단체경기 조추첨을 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서구를 보결선거 후보등록 4·29 재보결선거 후보 등록 시작일인 9일 오전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결선거 후보들이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새누리당 정승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 정의당 강은미 후보, 무소속 천정배·조남일 후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새정치, 총선 공천 경선 룰 ‘일반국민 60%·당원 40%’

탈당 전력 예비후보 경선점수 5% 차감 ... 현역 국회의원 평가제는 추후 논의키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 선거인단 60%+권리당원 40%’의 경선 룰을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9일 새정치연합 공천혁신기획단은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갖고 내년 총선 공천 룰을 이같이 확정했다.

추진단은 그동안 총선 룰과 관련, 권리

당원 비율에 있어 당세에 따라 지역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갈렸었다. 여기에 당초 탈당 전력에 있는 예비 후보를 경선 점수에서 10% 차감키로 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5%로 낮추기로 했다.

국민 선거인단 구성은 아우바운드 방식(중앙당이 무작위로 선거인단을 선정)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규모는 전체 유권자의 0.3% 이상으로 결정했다. 민생범죄자와 경선 불복자, 강력범죄자, 파렴치범 등은 경선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현역 국회의원의 평가제는 평가위원 선정과 평가 항목 등을 놓고 이견이 크다는 점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총선 공천 시행 세칙 등도 추후 보완해 가

기로 했다. 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오는 1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뒤, 13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공천 혁신안이 기존 공천 룰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사실상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에 직면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고위 관계자는 “공천혁신 추진단이 내놓은 내년 총선 공천 룰이 기존에 비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다”며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최소화하고 정치 신인들을 수혈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성완중 前 회장 잠적 후 숨진 채 발견

자원외교 비리 의혹 수사 중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중(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영장 실질심사 당일인 9일 유서를 쓰고 잠적한 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2분께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에서 등산로를 따라 300m 떨어진 지점에서 산속으로 30m 더 들어간 곳에서 성 전 회장이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경찰 증거채취원이 발견했다. 증거채취원 ‘나로’가 가족이 제공한 성 전 회장 의복의 냄새를 맡은 뒤 성 전 회장이 평소 자주 다니는 곳으로 알려진 형제봉 등산로에 투입돼 수색한 끝에 성 전 회장을 찾았다. 성 전 회장의 옷 주머니와 성 전 회장이 발견된 곳에서 10여m 떨어진 지점에 그의 휴대전화와 2대가 각각 발견되기도 했다.

성 전 회장은 2006~2013년 5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여원을 받아내고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50억원가량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연합뉴스

‘별들의 고향’ 이창호 감독  
광주서 새로운 영화 모험 ▶ 18면

**어? 성경이 읽어지네!**  
4월 3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4시 (10주 과정)  
구약 과정 개강 062) 605-1112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HAPPINESS GOLF & COUNTRY CLUB  
www.happinesscc.com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 로 초대합니다!

시통팔달 광주에서 최단거리 골프장. 남평오거리 5분 | 풍암 농수산물유통센터 16분 | 광주대학교 17분 | 평동산단 19분 | 첨단 하남산단 25분 | 문의. 061)330-5001~4

**해피니스CC 회원모집 안내**

■ 모집기간 : 2015. 3. 13. ~  
■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 코스규모 : 총 27홀 PAR 108 (전장 9,651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VIP 정회원 (5차)	모집인원 0명	주중/평일회원	모집인원 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회금액 : 3억 5,000만원</li> <li>회원특전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월 8회 주말주말보장(1일 1회), 골프탈개장시 할인혜택 - 지정회원 2인 : 그린피 면제, 배우자·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평일부킹권 부여</li> <li>▶선택 - A형·B형 중 선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형)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50% 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 (1일1회 사용) 무기명카드매 발급 : 그린피 50% 할인(연 220회 사용, 1일1회 사용)</li> <li>B형) 정회원 동반2인 그린피 50% 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1일1회 사용) 무기명카드매 발급 : 그린피 50% 할인(연 365회 사용, 1일1회 사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회금액 : 3,000만원</li> <li>회원특전 : ▶정회원 1인 : 그린피 70%선 할인</li> <li>※ 계약시 : 정회원만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원산시 : 모든 특전제공</li> <li>※ VIP정회원 및 하트정회원은 광주은행 담보대출 60%선 (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li> </ul>	
하트 정회원	모집인원 0명	<p><b>해피니스CC 신축 골프텔 GRAND OPEN!! 40객실 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회금액 : 2억 3,000만원</li> <li>회원특전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월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li> <li>▶지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배우자·직계가족 또는 임직원)</li> <li>▶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연 120회 사용, 1일1회)</li> </ul>			